

너, 이 그림 본 적 있니?

2022년 4월 25일 오전 8:09 219 읽음

상상농담 11. 김홍도 <서당>

<때로 친구 같은 선생님, 선생님 같은 친구>

제가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농담'입니다. 유머가 부족하지요. 오늘 부족한 유머 대신 퀴즈 하나 낼까요?

결혼의 표어는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

그럼 사랑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ㅋㅋ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내일의 어떤 상황도 머리카락에 없는 것!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충만한 감정으로 가득 찬 것 말입니다.

퀴즈를 하나 더 낼까요? ㅎㅎ

고전(古典)의 조건을 아시나요? 책장에 꽂혀 있되 완독 한 이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요. 아무래도 고전이라는 육중한 무게는 완독이 쉽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지요. 그림 명화(名畵)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보았고 어디에나 있으나 누구 작품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

조금 있으면 가정의 달, 5월인데 익숙하고 편안한 그림 한 점 소개합니다. '상상농담' 열한 번째 작품은 안산(제가 사는 곳)의 공식 지정 화가(^^) 단원 김홍도(壇園 金弘道, 1745~1806?)의 대표작 <서당>입니다. 김홍도의 그림은 생기 있고 긍정적인 삶의 건강성이 화면을 고르게 채웁니다. 더욱이 그의 담백하고 유려한 선에서 우리 그림의 깨알 같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학동이 훈장에게 종아리를 아프게 맞았나 봅니다. 아이는 한 손으로 대님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숙제를 다하지 못한 게지요. 아이는 억울한 듯, 창피한 듯, 몸을 웅크립니다. 그 와중에 왼쪽의 아이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는 터지는 웃음을 참고 있습니다. 마치 “아프지?” 하고 놀리는 것 같습니다. 왼쪽 줄은 행여나 훈장님이 다음번에 부르실까 염려되는지 열심히 외우고 있네요.



오른쪽을 볼까요? 일찍 장가를 간 것 쓴 학생이 있군요. 얼굴이 환한 걸 보니 훈장님의 질문에 너끈히 대답할 기세입니다. 그 아래 아이는 무척 총기 있어 보이는군요. 가르마가 단정하고 자세도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다음 아이는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합니다., 어라, 그다음 학생은 무척 주눅이 들었군요. 잔뜩 겁먹은 표정입니다. 앞에 계신 훈장님은 학동들의 얼굴만 보아도 누굴 시켜야 할지 아실 듯합니다.

•



회초리를 든 훈장님은 아이의 모습이 우스운 지 얼굴에 온통 웃음이 역력합니다. 꾸중은 하였으되 울고 있는 아이를 보니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모양입니다. 게다가 김홍도는 활발한 대각선 구도에 관람자의 상상 공간을 확보하려는 듯 널찍하게 앞 쪽을 열어 두었습니다. 시선은 웃음을 담은 훈장에게서 울음을 훔치는 아이에게로 그리고 좌우로 앉아있는 여러 학동들의 소란과 들뜸으로 옮겨갑니다. 그림 전체에서 ‘까르르’ 웃음소리가 굴러 다닙니다.

영화의 조건 중 하나가 눈으로 보지 않고 온 몸으로 느낀다고 하지요. 그의 천재성은 붓 끝으로 살짝 눌러 표현한 아이들의 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연 앞 위를 구르는 이슬처럼 화폭 위에 쏟아지는 맑은 웃음소리는 회화라는 시각적 표현방법에서 청각적 호응을 이끌어 내는 빼어난 장치입니다. 평면임에도 공감각적인 울림을 주지요.

김홍도는 영조 21년(1745년)에 태어났습니다. 환갑은 넘겼다 하나 졸년은 확인되지 않았지요. 그의 화력(畫力)은 29세의 나이에 영조의 어진화사(御眞畵寫)를 담당할 정도로 출중했지만 그의 눈은 자주 평민들의 소박하고 단출한 삶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속화첩>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씨름>, <우물가>,

<새참>, <집짓기> 등 서민의 삶을 바라보는 그의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이 녹아 있습니다. 안산에 머물렀다는 그가 남긴 <고기잡이>는 밀물 때 멋모르고 들어왔다 썰물에 어살(나무 울타리)에 갇혀 빠져 나가지 못하는 고기를 배에 담은 풍요로운 바닷가의 하루가 들어있습니다.

“참된 스승은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진정한 친구에게선 스승이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도시락을 까먹고 운동장에서 전체 기합을 받으면서도 킬킬거리며 행복했던 학창시절, 근엄하면서도 사랑이 넘쳤던 선생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지막으로 봄 시를 한 편 올릴까요? ^^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

PS:출출할 땀 요거(^^) 드세요. 영상보고 전 빵 터졌어요.

Video Player
음소거 해제

표정짓기

1. 댓글
2. 댓글



써니

맑은 웃음이 가르르르 넘치는걸 느끼고 싶은 ☂️ 소식 있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본성을 지키려면 출출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큰 깨달음이 큰
웃음을 주네요.
행복한 한 주 맞이하세요~~^♡^
4월 25일 오전 8:40
재밌어요 1

표정짓기
댓글 수정
3. 댓글



황효진
밝고 행복한 에너지가 전해지는 글입니다.
유쾌하고 밝은 한주가 될 예감입니다 ㅎㅎㅎ
4월 25일 오전 8:41
좋아요 1

표정짓기
댓글 수정
4. 댓글



홍광식
정다운 친구들이 기다리는 선생님의 입담으로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열렸군요.
고맙습니다.
4월 25일 오전 9:23
좋아요 1

표정짓기
댓글 수정
5. 댓글



장다효
선생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지요 질문있습니다 붉은칠한부분이무엇일까요~?
총기있어보이는 아이의 질문입니다~ㅎㅎㅎ
궁금해서요 김홍도를 정조가무척아꼈다지요 일본에가서 일종의
스파이? 를 춘화를 그리며했다하고 일본춘화그림 유명한것이
김홍도 작품이란 글을 워된가에서 읽었습니다~~ㅎㅎ
"참된 스승은친구가될수있어야하고 진정한 친구에게선
스승의모습이 보여야한다" 정말 좋은말씀입니다 항상 배우고
친구같은 쌤 감사합니다~~



4 월 25 일 오전 9:47

최고예요 1

표정짓기
댓글 수정
6. 댓글



이영숙

추억을 소환하는 아침이네요. 작품해설로 인하여 더욱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중학교때 제일 싫어하던 과목" 수학선생님이 흑~ 떠오르네요, 다음 번 호출자가 꼭 나일듯한 그 불안함, 영락없이 그 불길한 예감이 명중 했던 그 시절 ㅠㅠ.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네요. 친구들 생각에 ㅎㅎ.

새로운 길을 늘 이어주는 샘이 있어 행복하네요. ^^

23 시간 전

재밌어요 1

표정짓기
댓글 수정
7. 댓글



小安

서당을 보면,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반 친구가 숙제 안해왔다고(사실은 농사일 돕느라 숙제 따윈 못함) 깨벗고 운동장 돌면 웃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철없는 짓이었네요.

22 시간 전 표정짓기

표정짓기
댓글 수정
8. 댓글



지이선

서당 그림은 22×27cm 정도로

대략 A4 용지 크기인데

예전 중앙국립박물관에서 실물을 볼 때

마치 한편의 동영상을 커다란 화면으로 보는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터치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네요.

20 시간 전 표정짓기

표정짓기
댓글 수정
9. 댓글

YOONTHOVEN

고맙습니다

20 시간 전 표정짓기

표정짓기

댓글 수정

10. 댓글



siri

@장다호 총기있어 보이는 아이의 질문? 무엇하나 허투로 보지 않음을 칭찬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20 시간 전 표정짓기

표정짓기